

홈 > 뉴스 > 교육/문화 | 문화뉴스

## 제주도, 올해 문화예술 사업에 42억원 지원

2009년 01월 05일 (월) 13:34:27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mailto:media@mediajeju.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문화예술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하고, 이의 관련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제주문학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주문학관 건립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폐교나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제주어 사전편찬, 제주어 간판 디자인등 제주어의 발전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생활공간속에 흩어져 있는 민구류등 민속품을 마을별로 전수조사해 실용화하는 시책도 펼친다.

읍면동별 특장화된 품물팀을 육성하고 제주도품물연합회를 구성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 가는 신명나는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43개 읍면동 품물패가 세계델픽대회, 탐라문화제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관광 상품화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문화나눔 사업도 활발히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연극, 무용, 국악, 전시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도 한단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을별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도 지속되고 신규사업으로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작은 음악회등 작지만 생생한 생활속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해 지역의 장소를 명물화하고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공공미술사업도 지속하여 예술가들의 조그만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도 내실있게 시행된다.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활발히 전개될 계획이다.

이와관련, 홍원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담당 사무관은 "올해는 경제가 어렵지만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생활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희망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해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